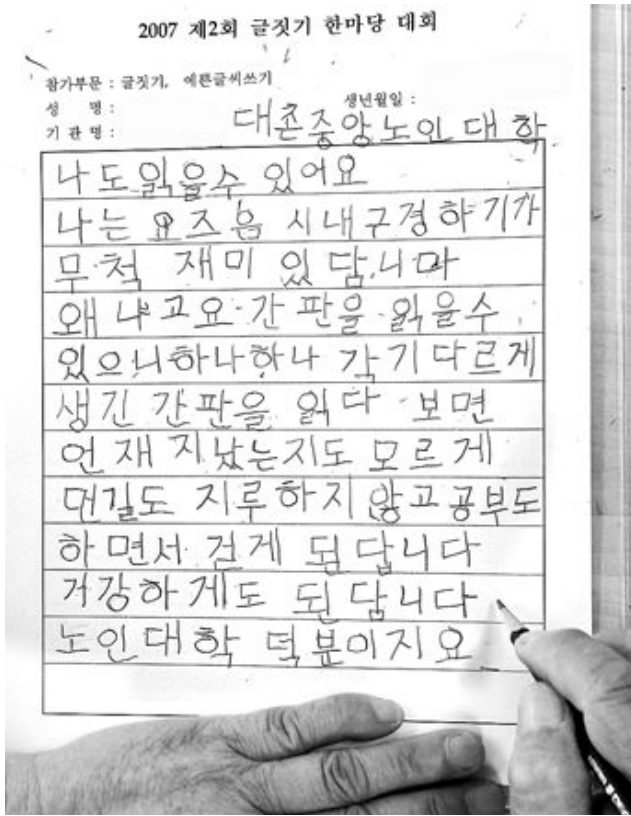


사자(子)의 띠 낫

까막눈 탈출기



글씨는 삐뚤빼뚤, 크기도 들쭉날쭉입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도 보입니다. 갖 입학한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지난 13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2회 어르신 글짓기 한마당 대회'에서 한 수험생 할머니의 어찌너머로 살짝 훑쳐 봤습니다. 기척을 느꼈는지 굵은 주름이 박힌 손을 들어 편지지를 가리는데 "민망해서"라고 하시더군요.
몇 줄 되지 않는 편지지, 연필로 꼭꼭 눌러가며 한 참을 쓰신 할머니는 흐릿한 표정을 짓습니다. '풀어서면 까먹는' 나이에 터득한 글씨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학교 근처에 가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래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채 눈감

고 살아온 70여년 세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라고 물었다더니 잠깐 생각하던 할머니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더군요.
손자뻘 되는 학생에게 차마 버스 번호 밑에 적힌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낮은 곳으로 간 경험, 눈이 안 보인다는 핑계를 대며 관공서나 은행에서 대신 써달라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잠 답답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최소한 내 이름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는 시작한 '까막눈 탈출기', 멋지게 성공한 것 같네요. 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나영주기자mjna@

오늘의 유머

■ 사흘 뒤에 들러
놀부네 집에 거지가 찾아왔다. 거지는 배가 너무 고프고 놀부 마누라에게 매달리며 애원을 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배가 너무 고프서 그래요. 찬 밥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사흘 지난 뒤 밥이라도 괜찮겠나?"
"그럼요."
놀부 마누라는 말했다.
"그러면 사흘 뒤에 들러!"

■ 저승 사자가 부르면
회갑(回甲) (61) : 지금 안계시다고 여주어라.
고희(古稀) (70) : 아직 이르다고 여주어라.
희수(喜壽) (77) : 老樂을 즐기라고 여주어라.
산수(傘壽) (80) :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주어라.
미수(米壽) (88) :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주어라.
졸수(卒壽) (90) : 서둘러 살아도 된다고 여주어라.
백수(百壽) (99) :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주어라.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통령이 된 땀, 집무실로 찾아온 교육부장관이 눈치를 살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 시험 학생들이 전부 다 보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 하기도 바쁜데 수학 시험 공부까지 하려니가 당연히 많이 많지."
"그게 아니고요, 그 시험은 대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보는 겁니다."
그 말에 화를 벌컥 내며 땀구 대통령이 하는 말.
"뉘요? 고등학생에게 대학 수학을 시험치게 해? 여보시오 장관!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고등 수학만 시험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수학 공부만 시키니 너나 할 것 없이 돈계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저예요.
어떤 부인이 은행 출납계에 가서 수표를 바귀 달라

고 했다.
은행직원이 부인에게 말했다.
"수표 뒷면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부인은, "수표 발행자가 바로 제 남편이란 말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수표 뒷면에 이서를 하셔야만 나중에 남편께서 이 수표를 누가 현금으로 바귀 갔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듯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표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여보, 저예요!"

■ 쥐도새도 모르게
어느날 몹시 가난한 쥐 부부가 끼니 걱정을 하다가 남편 쥐가 아내 쥐에게 물었다.
"여보! 이제 양식이 얼마나 남았소?"
아내 쥐가 대답했다.
"쥐꼬리 만큼 남았어요."
남편 쥐가 아내 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럼 우리 쥐도새도 모르게 먹어 치웁시다."

■ 어설플 성교육
일찍 성에 눈을 뜨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오복이 아버지는 걱정이 많다. 오복이가 여덟 살이 되자 성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복아,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네, 아빠. 편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짐짓 뽀뽀 하는 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꺼낸다.
"다름이 아니고, 성에 관한 것인데..."
그러자 오복이, 아버지의 눈을 그득하게 들여다보며 조용히 하는 말.
"편히 말씀하세요. 무엇이 알고 싶으신대요?"

■ 인간이 될 확률?
공제 면접 시험때, 한 응시자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자신들을 웃겨라"는 미션을 받았다.
당황하던 순간, 그 응시자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를 내뱉었다.
"정치인과 정자의 공통점을 아세요?"
듣고있는 반문이 심사위원들은 의아해 했다.
이 때 이 응시자는 씩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될 확률이 백만분의 일입니다"

뉴스퀴즈

90.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6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마무...
특히 남북은 이 공단 활성화에 대해 내년 부터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북 인원과 차량들의 공단 출입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단의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단은 어디일까요.
①개성공단 ②여천공단 ③하남공단 ④송암공단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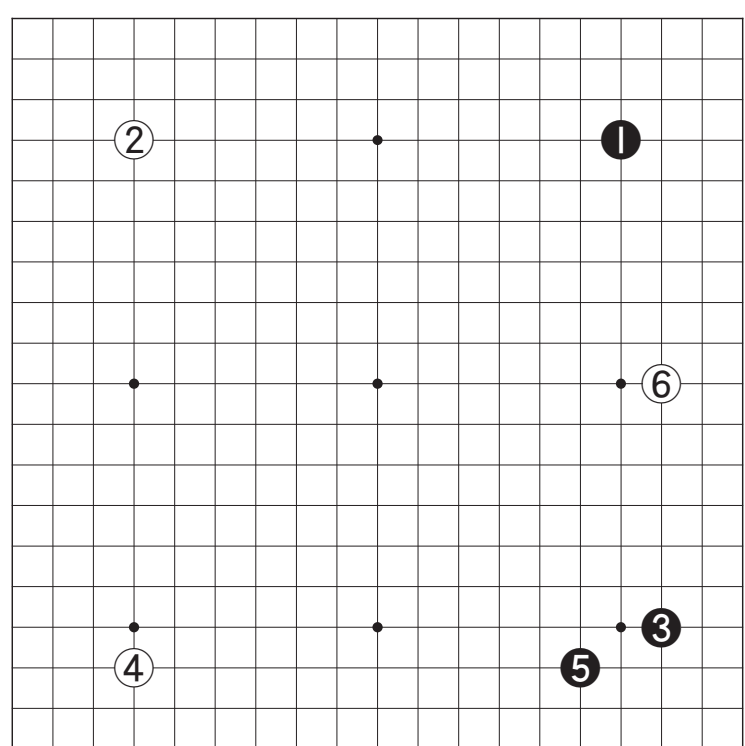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음 10월 11일 戊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3회 전남삼시사배 영암서 벌어진 바둑잔치 1보(1~6)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지난 5월 12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아마강자들과 지역의 성인, 여성, 어린이 등 바둑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한 주최측과 영암출신의 바둑황제 조훈현 9단과 필자 등 바둑관계자가 대거 출동한 가운데 그야말로 바둑인들의 잔치 한마당이 벌어졌다.
이 대회는 순천, 목포 대회에 이어 벌써 3회째 열리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는 특히 영암군에 조성하고 있는 바둑테마파크 착공기념으로 '전국아마최강전'을 신설하여 대회의 격을 한층 높여 지역동호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바둑소식
윤준상, SK가스배 우승

윤준상이 최근 여의도 스카이라인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결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허영호 6단을 백 불계로 꺾고 종합전적 2승1패로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 3월 제50기 국수전 도전전에서 이창호를 3승1패로 꺾고 국수에 올랐으나 신에기전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이창호와 재회해 제41기 왕위전 도전기를 벌이는 등 최근 LG배 결승에 진출한 한상훈과 함께 2007바둑대상의 유력한 신에기사상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우승 상금은 1천만원. 예선 토너먼트와 더블 본선리그를 벌인 뒤 순위전을 통해 상위 10위를 결정하는 대회다.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A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1. English (Would you explain them to me?), 2. Japanese (よくお似合いのカップルですね.), 3. Chinese (你去哪儿?), 4. Korean (易子教之(역자교지)).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multiple-choice answers, and a short story or explanation.